

2년전 완패 실욕...황선홍호, 일본 잡고 조1위 간다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오늘 일본과 격돌 3위까지 파리올림픽 티켓...4위엔 기니와 플레이오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에게 2022년 6월 12일은 가슴 아픈 날이다.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까지 출격한 당시의 황선홍호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를 쓸쓸하게 짐을 썼다.

일본은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 기존 나이보다 2살 어린 선수들로 팀을 꾸렸기에 더 충격적인 결과였다.

황 감독은 당시 "일본은 예상보다 더 강했다.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 절대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약 2년이 흐른 후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황선홍호는 다시 일본과 격돌한다. 같은 대회에서 설욕 기회가 온 것이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을 치른다.

아랍에미리트(UAE), 중국과 함께 B조에 묶인 두 팀 모두 조기에 8강행을 확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승점 6에 골 득실 +3을 기록, B조 공동 선두로 올라선 상태다.

조별리그 통과가 확정됐으나 황선홍호가 승리를

양보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패하면 B조 2위로 A조 1위를 차지한 개최국 카타르를 8강부터 상대하는 부담을 안는다.

골 득실과 다득점까지 같은 터라 한국, 일본이 비기면 대회 규정상 조 1위를 가리기 위해 연장전 없이 골장 승부차기를 하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

카타르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2승을 챙기는 등 홈팀답게 기세가 매섭다. 8강부터 부담스러운 상대와 마주하는 어려운 길을 피하려면 일본을 꺾고 당당히 B조 1위에 오르며 된다.

8강을 통과하면 황선홍호의 목표인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일단 4강 무대만 밟으면 파리행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번 대회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곧장 받는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라'는 한일전이지만 황선홍호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의 사연은 더 깊다.

파리 올림픽을 염두에 둔 일본은 오이와 감독 체제에서 일찍부터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팀을 운영했다.



1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중국과 경기를 앞둔 한국 선발 선수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U-23 아시안컵에서 기존 연령보다 어린 선수들로 황선홍호를 격파한 일본은 지난해 황재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대회 연령 상한선인 '24세' 보다 어린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결승에서 만났고, 이번에는 황선홍호가 2-1로 웃었다.

금메달에 병역 혜택이 걸린 만큼 이강인, 정우영(슈투트가르트), 홍현석(헨트) 등 유럽파 선수들

이 출격할 덕에 양 팀의 '체급 차'가 컸다.

아시아 연령별 대회에서 보기 힘든 '호화 군단'을 꾸린 황선홍호에 한 차례 막혔으나 부지런히 전열을 정비한 일본은 지난해 11월 세계적 강호 아르헨티나 U-23 대표팀을 5-2로 격파하는 저력을 보였다.

반면 황선홍호는 아시안게임 당시보다 약해졌다. 황 감독이 차출을 위해 애썼던 배준호(스톡크 시티), 김지수(브렌트퍼드), 양현준(셀틱) 모두

소속팀 반대로 합류가 불발됐다.

주목할 사실은 2년 전 우리나라를 꺾을 때 있었던 선수 다수가 이번 대회에도 참가했다는 점이다.

당시 두 번째 골을 넣은 공격수 호소야 마오(가시와 레이솔)를 포함해 우치노 다카시(뒤셀도르프), 사토 게인(브르드 브레넬), 마츠키 구류(FC 도쿄), 후지오 쇼타(FC마치다) 등이 또 한 번 U-23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상대한다. /연합뉴스

'한다혜 영입' 페퍼스, GS 보상선수로 서채원 내준다

수비·리시브 등 전력 보강

창단 멤버 서채원이 3년 만에 페퍼스를 떠나 GS칼텍스에 새 등지를 쓴다.

페퍼스측은 행 AI페퍼스는 지난 20일 "GS칼텍스에서 자유계약(FA) 선수 한다혜의 보상선수로 미들블로커 서채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서채원은 2021-2022시즌 신인 드래프트 3순위로 지명되며 신생 구단인 페퍼스에 입단했다.

미들블로커 서채원은 입단 후 꾸준한 경기에서 나서며 지난 시즌 40.91%의 공격성공률을 기록했다.

페퍼스 관계자는 GS칼텍스의 보상선수 지명에 대해 "창단 때부터 함께 했던 중요한 선수다. 이번 FA 영입에 대한 보상으로 서채원을 내주게 됐지만 그만큼 선수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단에서도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다혜의 영입으로 가장 취약한 수비나 리시브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A 입장이 마무리됐으니 강화된 전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오프 시즌을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채원은 이번 이적을 통해 2022-2023시즌 페퍼스에서 한술밥 먹던 미들블로커 최가은과 1년 만에 재회한다.

최가은은 이번 FA에서 한국도로공사행을 택한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희의 보상선수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게 된다. 지난 2021년 페퍼스 신생팀 특별지명을 통해 입단했던 최가은은 2023년 트레이드를 통해 도로공사로 이적했다.

GS칼텍스는 유망한 미들블로커 2명의 합류로 중앙 전력이 탄탄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관장의 이소영과 흥국생명의 이주아를 동시 영입한 IBK기업은행은 보상선수로 표승주와 임혜림을 내줬다.

2023-2024시즌 정규리그 5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던 IBK기업은행은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과 미들블로커 이주아의 영입으로 공격력과 수



창단 멤버 서채원이 3년 만에 페퍼스를 떠나 GS칼텍스에 새 등지를 쓴다. <페퍼스측 제공>

비력을 강화했다.

지난 시즌 이소영은 37.95%의 공격 성공률을 올리며 215득점을 기록했고, 블로킹 4위에 오른 이주아는 34.87%의 리시브 효율로 214득점을 올렸다.

이소영의 보상선수로 정관장에 지명된 아웃사이드 히터 표승주는 지난해 KOVO컵 대회에서 MIP(기량발전상)를 수상하고 2023-2024시즌 울스타전에서 최우수선수로 뽑혔던 만큼 새 보급자리에서의 활약에 관심이 쏠린다.

미들블로커 임혜림은 이주아의 보상선수로 다시 핑크색 유니폼을 입게 됐다.

2022-2023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했던 임혜림은 2023-2024시즌을 앞두고 김수지의 FA 보상선수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1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임혜림은 높은 블로킹과 탄력 있는 점프력으로 미들블로커 포지션을 보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선발 복귀' 김민재, 철벽수비로 뮌헨 승 이끌어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출전한 김민재(오른쪽). /연합뉴스

우니온 베를린에 5-1 대승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소속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선발로 복귀해 대승에 힘을 보탤다.

김민재는 21일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피르스터라이에서 열린 우니온 베를린과의 2023-2024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 후반 14분 다우 우파메카노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이달 초 하이덴하임과의 리그 28라운드에 모처럼 선발로 출전했으나 실점 빌미를 제공하고 팀이

2-3으로 역전패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김민재는 이후 공식전 2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이후 18일 아스널과의 UCL 8강 2차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 다시 출전 기회를 잡았고, 이날 리그를 기준으로 2경기, 공식전 전체로는 4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다.

김민재와 다이어의 중앙 수비 조합을 꺼내든 뮌헨은 우니온 베를린을 5-1로 완파, FC 쾰른과의 29라운드(2-0 승)에 이어 리그 2연승을 수확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승점 79)에 트로피를 내줘 분데스리가 12연패를 이루지 못한 뮌헨(승점 66)은 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쿵푸팬더4 |
| 2관 | 파묘 |
| 3관 | 고스트버스터즈: 오싹한 뉴욕 |
| 4관 | 남은 인생 10년 |
| 5관 | 넷플부대 |
| 6관 | 쿵푸팬더4 |
| 9관 | 오멘: 저주의 시작 |
| 7관 새배극 | 쿵푸팬더4, 아서, 오멘: 저주의 시작 |
| 8관 새배극 | [보석기가]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고질라 X 공: 뉴 엠파이어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4월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